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구강보건 지식정도 와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지정도 연구

이연경[†] · 박정란¹ · 권선화²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¹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²마산대학 치위생과

Elderly Convalescence Facility Workers' Knowledge About Oral Health and Subjective Oral Health Care is the Degree of the Elderly

Yeun-Kyoung Lee[†] Jeong-Ran Park¹ and Sun-Hwa Kwon²

Dept. of Dental Hygiene, Keukdong College, Eumseong, Choongbuk, 369-703,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Choongnam, 330-704, Korea

²Dept. of Dental Hygiene, Masan College, Kyungnam 630-729, Korea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the recognition on subjective oral health knowledge and elderly oral health management wi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233 worke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located in Gyeonggi-do, it was shown that their general oral health knowledge level was high while their elderly oral health knowledge was lower than general oral health knowledge. And it was found that respondents answering they had keen interest in the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the interest in elderly oral health showed a higher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than those answering they had no interest in it, which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 Regarding the study subjects' elderly oral health management and educational demand, quite a high percentage of 83.7% responded the education is needed. A response that it is appropriate for dental hygienists to give elderly oral health management and the education showed 57.9%, which was the most. Also, it was shown that in the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of elderly oral health managers and educators, subjects recognizing that it is needed to be dental hygienists indicated a high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which showed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Key words Elderly convalescence facility worker, Elderly oral health, Oral health knowledge

서 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하되어 젊은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고령사회에서 그 많은 노인인구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¹⁾ 하는 문제와 함께 만성적 질환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때 이들을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인구 충격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 할 만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이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의 질병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치매, 중풍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노인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에 의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³⁾를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화 및 노인성 질환대상자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⁴⁾ 이러한 제도로 혼자서 수행하기

[†]Corresponding author
Tel: 043-879-3415
Fax: 043-879-3411
E-mail: lyk0312@empal.com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서비스로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⁴⁾.

이러한 서비스 중 방문간호 부분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라 함은 치과외사가 제공하는 방문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구강위생서비스나 예방치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⁵⁾. 이렇게 노인요양보호 시 구강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전문적인 구강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65세 이상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⁶⁾하는 시설이다.

신 등⁷⁾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은 구강위생, 직원의 인지도 등이 낮고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가 소홀하며 구강검진이나 치료에 대한 관리 또한 입소자들의 관리에 두기 때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나 지식이 높지 않다고 했으며 시설에서 치과영역에 관해서는 치과 의료진(치과외사, 치과위생사)에 의한 관여는 거의 없고 직원에 의한 매일의 구강위생(의치의 세정 포함) 시에도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명확한 지침, 방법론도 없이 시행되는 상태였다고 보고한바 있다.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증가하며 노인구강보건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편⁸⁻⁹⁾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력인 치과위생사는 노인요양 시설에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인의 구강질환은 특성상 구강에 대해 전문적인 구강위생처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노인에게 기본 구강위생처치만 수행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및 노인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지정도를 파악하여 노인시설종사자들에게 맞는 구강보건관리 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노인시설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을 파악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월2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 노인들의 생활 지원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지역 노인요양시설 6곳을 방문하

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총 265부 중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성실한 32부를 제외한 233부를 유효한 자료로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김¹⁰⁾의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특성에 적합하게 일반적인 문항 6문항, 구강건강관리행태 5문항, 구강보건지식 13문항, 노인구강보건교육 6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문항은 일반적인 구강보건(4문항), 노인구강보건(6문항), 의치관리보건(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문항을 읽고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여 표시하게 하였다. 정답은 1-7번, 11-13번 문항은 ‘그렇다’가 정답이며 8-10번의 문항은 ‘아니다’가 정답이다. 점수 부여 방법은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총점은 0점에서 최고 1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563이었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 자료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사항과 구강보건지식,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요구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정도, 노인구강보건관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는 t-test와 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은 40-49세가 35.6%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10.7%로 가장 적었다. 성별은 여성이 72.1%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63.5%로 미혼의 35.6%보다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42.1%, 대졸 이상이 30.5%, 고졸이 27.4%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38.2%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사가 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4년 이하가 62.6%, 5-9년이 21.0%, 10-14년과 15년 이상이 각각 8.2%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구강보건지식정도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의 문항별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식 문항은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가 9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위생용품 사용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 N(%)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Age	20-29 years	73 31.3
	30-39 years	52 22.3
	40-49 years	83 35.6
	50and over	25 10.7
Gender	Male	65 27.9
	Female	168 72.1
Marital status	Single	83 35.6
	Married	148 63.5
	Etc.	2 0.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64 27.4
	College graduate	98 42.1
	University graduate and over	71 30.5
Jobs	Social Worker	89 38.2
	Nurse	26 11.2
	Physical Therapist	10 4.3
	Elderly Care worker	79 33.9
	Nutritionist	29 12.4
Work experience	Less than 4 years	146 62.6
	5-9 years	49 21.0
	10-14 years	19 8.2
	More than 15 years	19 8.2
Total	233	100.0

하면 잇몸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가 96.6%, '노인이 되면 입이 마르고 건조하다'가 96.1%, '치아가 없는 노인은 잇몸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가 94.0%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또한 '불소는 노인 치아에도 충치 예방 도움을 준다.'가 91.4%,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충치와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가 89.7%, '치아가 없어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No	Item	Correct N(%)	Incorrect N(%)
1	Proper brushing alone can prevent tooth decay and gum disease	209(89.7)	24(10.3)
2	Gum disease appears as an old man is a natural symptom	97(41.6)	136(58.4)
3	If you use oral appliances can help prevent gum disease	225(96.6)	8 (3.4)
4	The amount of sugar intake than the number of cavities is important	201(86.3)	32(13.7)
5	When brushing the tongue to wash	226(97.0)	7 (3.0)
6	Fluoride to prevent cavities in the teeth of the elderly is helpful	213(91.4)	20 (8.6)
7	The old man is dry mouth	224(96.1)	9 (3.9)
8	Aged by the aging process tooth is pulled out	42(18.0)	191(82.0)
9	All seniors should wear dentures	167(71.7)	66(28.3)
10	Wearing dentures at night to sleep better	194(83.3)	39(16.7)
11	Dentures liquid dishwashing detergent or washing with soap is recommended	73(31.3)	160(68.7)
12	You can lose all your teeth that brushing should be done	204(87.6)	29(12.4)
13	The old man with no teeth, it is good to massage the gums	219(94.0)	12 (6.0)

Table 3. Correct answers for each area of oral health knowledge

Classification	Maen	SD
General Oral Health (1,3,4,5Question)	3.69(4 perfect score)	.59
Elderly Oral Health (2,6,7,8,12,13Question)	4.28(6 perfect score)	.83
Denture Oral Health (9,10,11Question)	1.86(3 perfect score)	.68
Score	9.84	.08

도 칫솔질은 해야한다.'가 8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노인이 되면 노화현상에 의해 이가 빠진다.'가 82.0%로 가장 높았으며, '틀리는 주 방용액체세제나 비누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가 68.7%, '잇몸질환(풍치)은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가 58.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구강보건지식의 각 영역별 정답률

구강보건 지식정도는 전체 평균은 13점 만점에 9.84점으로 전체적으로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이 4점 만점 중 3.69점, 노인성 구강보건지식인 6점 만점에 4.28점, 의 치구강보건지식이 3점 만점에 1.86점으로서 일반적인 구강보건 지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에서 정기적 치과방문을 6개월마다 방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구강 보건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일일 칫솔질 횟수에서는 4회 이상 칫솔질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회 칫솔질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

Table 4.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ntal health knowledge

		Unit: Maen±SD(N=233)		
Classification		N	Oral health knowledge M±SD	p
Regular dental visits	Not at all visits	75	9.53±1.30	.037*
	Every 6 months	38	10.23±1.07	
	For one year	85	10.00±1.39	
	Every 2 years	35	9.54±1.42	
One day brushing	Twice a day	51	9.43±1.22	.039*
	Three times a day	144	9.93±1.30	
	More than 4 times	38	10.05±1.52	
Commonly used oral hygiene	Not Available	72	9.72±1.32	.683
	Dental floss	37	9.75±1.40	
	Interdental brush	105	9.94±1.37	
	Mouth rinse products	12	10.16±1.11	
	Electric toothbrush	7	9.57±1.13	
Scaling experience	Has experienced	172	9.87±1.34	.536
	Not experience	61	9.75±1.33	

*p<.05

Table 5.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elderly oral health interested

		Unit:Maen±SD(N=233)		
Classification	N	Oral health knowledge M±S.D	p	
A lot of interested	86	10.23±1.38	.001***	
Normal	103	9.74±1.28		
Be indifferent	44	9.31±1.17		
Total	233	9.84±1.33		

*** p<.001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주로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은 구강양치액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스크링 경험 유무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구강보건지식수준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5. 노인구강보건관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

노인구강보건관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5).

6.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요구도

조사대상자의 시설에서의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요구도에서는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7%,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나 노인

Table 6. Elderly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needs

		Unit : N(%)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Elderly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needs	Need	195	83.7
	Not required	38	16.3
Total		233	100.0

Table 7.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is an educator and oral health knowledg

		Unit:N(%), Maen±SD		
Classification		Frequency (%)	Oral health knowledge	p
Elderly oral health manager and oral health educators	Dentist	45(23.1)	9.44±1.21	.044*
	Dental hygienist	113(57.9)	10.02±1.25	
	Care worker & Social Worker	25(12.8)	9.96±1.64	
	Nurse	12(6.2)	9.33±1.55	
Total		195(100.0)	9.84±1.33	

시설에 노인구강보건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7. 노인구강보건 교육 시 교육자 인지 및 구강보건 지식정도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노인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57.9%가 치과위생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구강보건관리자 및 교육자 인지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는 치과위생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지한 대상자가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7).

고 찰

노년기는 건강의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 시기로¹¹⁾ 노화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¹²⁾.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노년기의 생활에 많은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노년기에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¹³⁾. 이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먹기 위해서는 우선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과 구강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노후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은 구강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실

시⁴⁾하여 예전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은 노인들의 건강관리 중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상태에서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다 좋은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종사자들의 구강보건지식과 인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인지정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맞는 구강보건교육의 기초자료와 노인시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먼저 노인 시설종사자의 구강보건지식정도를 살펴보면 '노인이 되면 노화현상에 의해 이가 빠진다.'의 오답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백¹⁴⁾은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고령화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퇴화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 민과 이¹⁵⁾는 인간은 성숙기 이후 노쇠현상이 심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화에 의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고 정의할 수도 있으나 치아상실은 노화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주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노인의 구강질환과 치아 상실은 주로 소년기와 청년기 및 장년기에 주기적으로 예방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를 전달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식습관 또는 노년기의 구강환경을 적절히 관리 하지 않아서 초래 될 수 있다¹⁶⁾.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들이 자칫 노인이 되면 치아가 빠진다는 편견을 가지고 노인구강을 관리한다면 노인들의 치아결손이 생기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치과위생사가 시설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구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인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에서는 정기적 치과방문이 6개월마다 방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0.23점으로 치과를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9.53점 보다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혀 치과를 방문하지 아니한 연구 대상자들에 비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대상자가 본인의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들에게 구강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시설에서 노인의 구강건강까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인시설종사자 자신의 구강건강부터 신경을 써서 정기적인 치과방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구강보건지식정도에 대한 각 영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 3.69(4점만점)점에 비해 노인성 구강보건지식 4.28(6점만점)점과 의치구강보건지식 1.86(3점만점)점이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김과 이¹⁷⁾는 노인들은 노인성구강질환인 구강건조증과 잇몸마사지, 의치관리에 요구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시설종사자들은 이러한 노인성 구강보건지식과 의치구강보건지식을 낮은 것을 볼 때 노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치과위생사가 노인시설에 종사하면서 노인성 구강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입 체조와 잇몸마사지 등을 제공해 주고 의치장착노인에게는 의치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주어 노인들에게 질 높은 구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요구도를 보면 구강보건관리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대상자(83.7%)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지한 대상자(16.3%) 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노인시설종사자의 전문인력을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⁸⁾. 이러한 인력들은 노인구강보건에 대해 기초적인 교육은 받으나 심화된 교육은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설종사자들도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에 치과보건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인의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노인들이 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시설에서는 치과위생사 등 구강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인력들이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냐는 응답에 치과위생사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강보건지식정도도 10.02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치과위생사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구강질환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치치를 수행하는 임상술식이며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구강보건교육자이다¹⁹⁾.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설종사자들이 치료가 아닌 구강보건관리나 교육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된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시설종사자의 전반적인 구강보건지식 및 인식은 높은 편이나 노인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이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은 노인구강건강관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노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체계화 시킬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종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정한 시점에서 조사한 단면 연구이므로 우리나라 시설종사자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선행논문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고찰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노

인의 구강보건지식, 인지, 행태가 아닌 노인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구강보건지식 및 인지도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리에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및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 노인시설 종사자 23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의 문항별 응답은 ‘칫솔질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가 9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에서는 정기적 치과방문이 6개월마다 방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일일 칫솔질 횟수에서는 4회 이상 칫솔질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 구강보건 지식정도는 전체 평균은 13점 만점에 9.84점으로 전체적으로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이 4점 만점 중 3.69점, 노인성 구강보건지식인 6점 만점에 4.28점, 의치구강보건지식이 3점 만점에 1.86점으로서 일반적인 구강보건 지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구강보건관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5. 조사대상자의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요구도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7%,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났다.
6.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은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구강보건지식정도도 치과위생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지한 대상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7).

이상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시설종사자들에게 노인구강

보건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를 노인시설에 적극적으로 배치시키는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왕혁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2008.
2. 통계청. 장래인구특별 추계. 2005.
3. 양영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요구.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2): 1-3, 2007.
4. 국민건강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설명자료. 2010.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2조[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27호]. 2010.
6. 노인복지법. 제34조[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64호]. 2010.
7. 신리혜 외: 한국노인요양시설 구강 위생 현황과 일본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전망. 대한치과보철학회지 46(1): 83-89, 2008.
8. 유상희, 김영임, 이홍수: 가철성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2(4): 575-586, 2008.
9. 원영순: 노인의 구강상태와 식습관 및 건강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원주, 2003.
10. 김미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광주, 2008.
11. 오영희: 우리나라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련성연구[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5.
12. 이영자: 한국 노인의 건강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1989.
13. 황지민: 노인의 구강보건지식, 행위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6.
14. 백선호: 노인구강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죽전, 2002.
15. 민병국, 이규선: 지역사회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 조사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1(1): 86-103, 2003.
16. 황미영 외: 지역사회노인의 구강관리 실태 조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0(2): 143-148, 2002.
17. 김혜진, 이연경: 일부 노인의 보철장착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와 구강관리 요구도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9(4): 824-835, 2009.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타)일부개정 2010.9.1 제18호]. 2010.
19.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 소개. <http://www.kdha.or.kr/> (2010).

(Received September 28, 2010; Revised November 29, 2010; Accepted December 2, 2010)

